

전남도, '농업 AX 플랫폼' 본격화... 미래 농산업 구조로 전환

2026년 정부예산에 농업 AX 혁신 플랫폼 연계 3대 사업 반영

전라남도는 국가 농업 AX(AI전환) 혁신 플랫폼과 연계한 핵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3대 사업이 2026년 정부예산에 대폭 반영·증액되면서, 전남 농업이 미래형 농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영된 사업은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총사업비 450억 원) ▲농업 AX 실증센터 구축(총사업비 400억 원)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총사업비 300억 원) 등 총 1천150억 원 규모다. 모두 무안군 일원에 구축될 예정이다.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스마트농기계·드론·자율주행 장비·스마트팜 기자재 등 첨단 농업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플랫폼이다.

전시·홍보관, 수출상담실, 기업 지원 사무공간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다목적 비즈니스 거점으로, 국내 농업기술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도가 지속해서 건의한 핵심 사업이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케이(K)-농업 AX 혁신 플랫폼의 기업지원·수출지원 기능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새롭게 반영된 농업 AX 실증센터 구축은 스마트 농기계, AI 솔루션, 자동화 장비 등 다양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실증 농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시연할 실증형 기반시설이다. 기술 간 연동성 검증, 경제성 분석, 성능 비교 등을 할 수 있어 기업·농가·연구기관이 함께 활용하는 기술 협업의 장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전남에서 매년 개최되는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에 기술 검증과 국제화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는 작물 생육 이미지, 성장 패턴, 환경데이터 등 정밀 피노타이핑 데이터를 구축하는 전문



분석시설이다. 국내 농업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표준 생육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품종 평가·육종 지원·스마트농업 장비 개발 등 연구개발(R&D)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은 정량 데이터 기반의 검증체계를 활용해 기술 개발과 해외 인증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AX 플랫폼 3대 사업이 구축

되면, AI 스마트팜-기술 실증-데이터 분석-수출지원까지 이어지는 전남형 농산업 혁신체계가 본격 확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지털농업, 로봇·스마트기계, 에너지 자립형 온실 등을 포함한 미래형 농업 생태계가 전남에서 집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남이 국가 농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염선호 기자



서구 마을로 복지관, 지역밀착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

복지관 고립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장

광주광역시 서구가 복지현장 조사자들과 함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서구는 8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2025 마을로(路) 복지관 들불홀에서 '2025 마을로(路) 복지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의 특화사업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서구는 2023년부터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밀착형 '마을로(路) 복지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주도의 복지사업 개발'을 목표로 ▲타임뱅크 기반의 '금호시간 나눔터' 운영 ▲원룸촌 은둔형 외톨이 발굴 활동 ▲풍암호수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풍암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고립가구 발굴과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적 고

립가구 발굴 캠페인 ▲마을봉사 동아리 운영 ▲마을활동가 및 주민리더 발굴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마을 내 돌봄 관계망 형성과 주민활동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

또한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은 은둔형 외톨이 조기 발견과 심리 안정 지원을 위해 ▲무각사 템플스테이 등 문화체험활동 ▲긴급희망연결시프리트 전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은 ▲화정3·상무2동을 중심으로 이모용서비스, 사랑, 해 빨간 밭 등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서비스 ▲'화삼골 꾸러기 모꼬지' 아동 축제를 통해 아동 돌봄을 지원했다.

농성·빛어울체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어르신 생신잔치 ▲건강찾아 마을찾아 근력운동교실 등을 통해 정서적 돌봄과 건강 증진을 지원했다.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적 고

/박석우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병원 퇴원 환자의 재입원 및 시설 입소 예방을 위해 지역 12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퇴원 환자 재가 복귀 서비스에 나선다.

특히 재입원 가능성이 가장 높은 퇴원 직후부터 구청과 협약 의료기관이 협력해 환자별 맞춤형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남구에 따르면 퇴원 환자 재가 복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업무 협약이 지난주 구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는 광주기독병원과 전남대

광주 남구, 퇴원 후 '가정 내 진료 공백' 걱정 덜다

병원에서 재가 돌봄 요청시 구청에서 지원

병원, 빛고을 전남대병원, 광주보훈병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광주 365 재활병원, 효인재활요양병원, 효다움 요양병원, 사랑샘 병원, 해피비병원, 선선 한방병원, 주월 한방병원이 참여했다.

퇴원 환자 재가 복귀 서비스는 12개 의료기관에서 입원 뒤 퇴원하는 환자에게 의료와 돌봄, 복지를 통합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건강 문제와 재활 등 장기간 치료로 복합적인 추가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면 구청에서 건강 상태와 돌봄·의료·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청에서 제공하는 세부 서비스는 방문 간호를 비롯해 10가지 이상 약물 복용 대

상자 관리, 물리치료, 맞춤형 운동 지도, 식사 지원, 가정 내 안전바 설치, 방문 목욕 등 다채롭다.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해 중위소득 90% 이하는 무료이며, 중위소득 90~120% 이하는 본인 몫으로 비용 30%를 부담한다.

또 중위소득 120~160% 이하는 부담금 60%을, 중위소득 160% 이상은 본인이 전액을 낸다.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경보 알람과 시민 행동요령을 무료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대기 정체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민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광주시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신청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 경보·행동요령 등 무료 알람 제공

하고 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 전역에 대기측정소 11개소를 설치해 24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결과를 에어코리아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매시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 발생

때는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알람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중앙정부 재난문자와는 별도로 주의보·경보 발령 사실, 발령 시간, 경보 단계, 시민 행동요령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는 대표적 생활밀착형 환경문제로서 정보 접근성이 곧 건강 보호와 직결된다. 경보 문자서비스는 시민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안전 알림망을 제공하는 수단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미세먼지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1면에서 이어짐

광주시는 지자체가 예산을 우선 조달해 공항을 짓고 국방부가 현재 부지를 지자체에 넘기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줄곧 지적해 왔다.

강 시장은 "공항 건설기간은 최소 8년 이상으로 이차비용만 수 조원"이라며 "재

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큰 부담인 만큼,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해 이차 부담을 줄이고, 무안군을 지원하는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와 함께 2027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시기에 맞춰 민간공항 이전이 선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

지역 반발과 반대론이 여전히 추후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 소지도 없진 않다.

시 관계자는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첫 6차 회동은 17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4차 회동에서 민간공항 먼저 옮긴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6차 TF에서는 공식 문서화하는 등 합의안이 도출되면 공항이전 문제는 큰 산을 넘

게된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은 1964년 송정리 공군부대 창설과 함께 현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민간공항은 1948년 동구 학동의 광주 비행장 개항 후 1964년 1월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다. 민간·군 공항의 패키지 또는 시간차 이전 논의는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19년째 이어지고 있다. /뉴스

동구, 예술 간판 입은 광주 예술의 거리 눈길

17개 업소 예술 간판 지원사업 완료... 특색 있는 경관 조성

광주 동구는 예술의 거리 경관특화 시범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예술의 거리 예술 간판 지원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예술의 거리 십자거리 일대 17개 업소에 예술 간판을 신규 설치해 특색 있는 간판 거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획일적이고 원색 위주의 상업 간판에서 벗어나 업소별 특성과 감성을 반영한 임체형 예술 간판을 도입해 거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사업을 통해 간판을 단순한 상업적 표시가 아니라, 거리의 문화와 예술을 담아내는 공공디자인 요소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구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2023년부터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예술의거리 상인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간 디자인 방향 설정

▲향후 연계 사업 발굴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단계적인 경관개선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올해 5월부터는 총사업비 1억 2천 6백 만 원을 투입해 예술의 거리 내 업소를 대상으로 예술 간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특히 지역 예술가들이 간판 디자인 개발과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각 업소의 업종과 개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예술 간판이 완성됐다.

동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참여 기회 확대 ▲예술의 거리 정체성 강화 ▲젊은 층 유입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다양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술·상업·공공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지역 맞춤형 경관 개선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철수 기자

